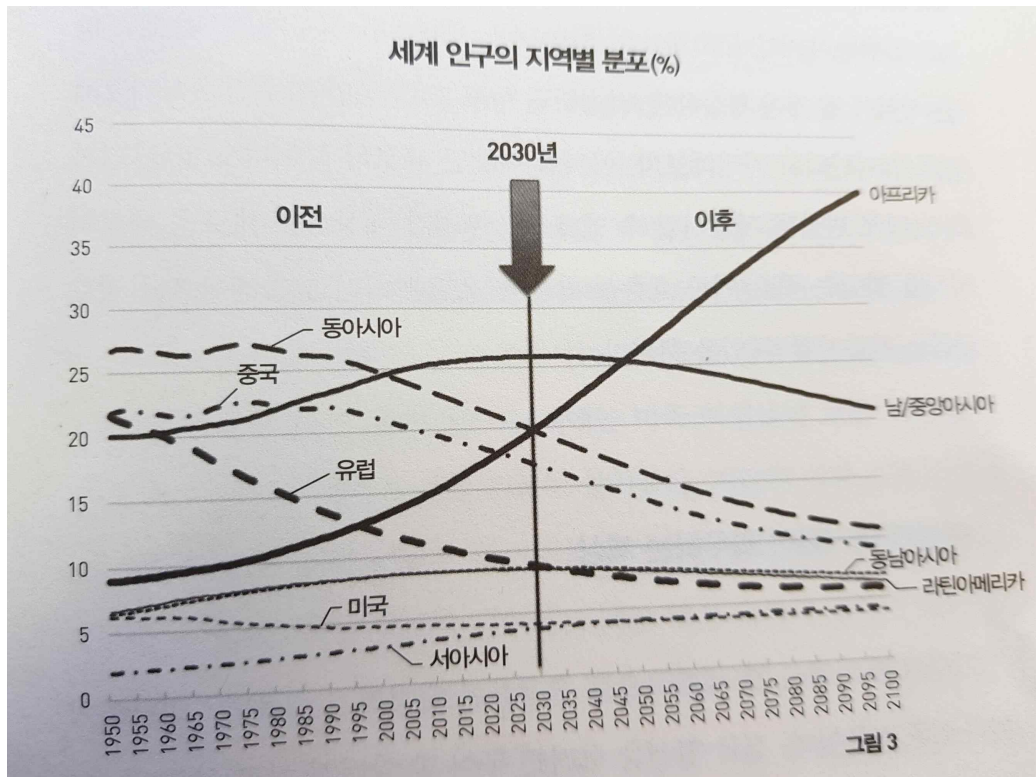


1장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아기는 입과 위장뿐 아니라 두 손도 갖고 태어난다

-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 인구는 1960년과 1990년 사이에 늘어난 인구수의 절반 이하 정도만 증가할 것이다.
- 노년층이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노년층을 누가 돌보며 그들의 연금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 1950~2015년에 유럽의 사망률은 3% 정도 낮아졌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무려 65% 나 낮아졌다.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도 기대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성과 아기들이 좌우하는 세상

-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와 경제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여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출생률 저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성관계에 대한 무관심

-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식량 공급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기근과 전염병등 질병이 뒤따르게 되었다. 맬더스를 비롯한 당대의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무서운 번식 능력 때문에 멸종의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 식량 생산과 분배에 관한 혁신의 잠재성을 과소평가한 맬더스는 현대 기술이 인간의 성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듯하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오락거리(라디오, TV, 비디오 게임, 인터넷등)를 접하게 되어 성관계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돈의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

- 부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녀의 ‘양’과 ‘질’ 사이에서 손해와 이익을 저울질한다. 부모들은 수입이 많아지면 자녀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나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어한다.
- 많은 부모가 이제 시간과 자원을 이전보다 적은 자녀들에게 투자하며, 자녀들에게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아이들이 불평등이 심해지는 환경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하여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은 순 현재 가치와 수익률을 가진 투자의 대상인 셈이다.

정부가 임신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 중국에서의 출생률 저하의 원인은 세계 다른 지역과 같다. 도시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진출, 그리고 많은 자녀를 갖는 대신 적은 자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꾼 부모 등등. 중국의 지도부는 주어진 문제를 수평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 “경제발전이 최고의 피임”이라는 유명한 구호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중국에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 낳은 가장 큰 결과는 세대차이, 혹은 세대 사이의 단층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로 가장 빠르게 인구 노령화 현상을 겪을 것이다.

중국 한 자녀 정책의 최고 수혜자

-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남아 선호 사상과 맞물려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보다 20% 더 많은 성비 불균형을 만들어 냈다. 결혼 시장의 극심한 경쟁 때문에, 결혼 적령기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적당한 짝을 찾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을 늘리고 있다.
- 중국의 성비 불균형과 그에 따라 과도하게 높아진 저축액이 아니었다면 미국인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담보 대출과 소비 지출에 대해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베이비 붐

- 아프리카는 위험(정치적 혼란, 무정부 상태)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인구증가가 낳는 잠재적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점점 느는 인구 때문에라도 아프리카는 눈여겨봐야 할 곳이 되었다. 좋은 나쁘든, 아프리카의 운명이 곧 세계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 인구 문제가 곧 우리의 운명은 아니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아프리카의 이중 혁명

- 아프리카는 지난 세기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농업 및 산업의 이중 혁명을 경험 할 것이다. 농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나아진 생활 수준은 늘어나는 새로운 젊은 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농산물 가공 등 제조업, 서비스 산업)를 제공할 것이다.
- 세상에 널리 퍼진 ‘인구 폭발’이라는 유언비어와는 달리, 인구통계학적 성장은 실제로는 농업 분야에서 아프리카의 성장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토양 관리, 관개수로, 그리고 유통 분야의 개선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준다.
- 열대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카사바(cassava)라는 식물은 뿌리채소로 남미가 원산지이고 가물에 아주 강하고 한 번 심으면 18개월 동안 언제든지 수확이 가능하다. 카사바는 글루텐이 없고, 당분이 밀보다 낮아서 일반 곡물보다 건강에 좋은 대체 식품이므로 당뇨병 환자들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카사바는 합판의 재료나 알약, 연고같은 의약품의 충전제, 바이오 연료, 맥주 등 수출에 유리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공할 수도 있다. 카사바 맥주가 이른

바 가성비가 뛰어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우리의 집 근처에서 아프리카 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날도 머지 않았다. 세계의 거대 주류 회사들도 긴장해야 할 것이다.

실리콘사바나

- 이동통신 기술은 이미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케냐의 나이로비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빗대어 ‘실리콘사바나’라고 불리는 도시가 되었다.
- 케냐에서는 전체 인구의 90%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교육과 복지 의료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동통신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불안과 분노

- 미국 과학, 공학 및 의학 한림원이 주요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기술이 거의 없거나 반대로 대단히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처럼 기술이 거의 필요 없는 일자리는 풍부하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풍부하다.
- 선진국에서는 일자리 소멸 현상이 중간 정도의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몰려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 일이야말로 쉽고 좀더 경제적으로 기계화 혹은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과학자와 전문 기술자들에 대한 입국 비자를 제한하면 오히려 미국 국내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업들이 재능 있는 인재들을 찾아 연구 담당 부서들을 해외로 옮겨버리기 때문이다.
- 시간이 지날수록 이민자들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따라 받는 혜택보다 노동력과 소득세 등을 통한 정부 재정에 더 많이 기여한다.

이민자가 일자리를 만든다

- 이민자들은 보통 직접 기업을 세우고 경영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민자들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이유는 특별

히 더 뛰어난 능력을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과학과 공학 분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2030년 미국의 경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이민자들에 더 많이 의지할 것이다.

이민자에 대한 인지적 편향

- 우리가 살면서 여러 문제에 대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우리의 사고가 ‘손실 회피 편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 이민자들에 대한 선호도와 그에 따른 정책의 범위는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 속에서 만들어지며, 심지어 조종이나 조작도 가능하다.
- 이민자들은 사회의 위협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미래를 책임져줄 또 다른 기회다. 이민자들은 사회보장 보험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세금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이들이 일하며 내는 납부금으로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을 보충할 있다.

두뇌 유출의 진실

- 낮아진 운송비와 디지털 기술로 수월해진 의사소통 덕분에 기업가들은 인도나 미국, 혹은 미국과 중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를 쉽게 오가며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었고, 각 나라별로 유용한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다. 대륙을 가로질러 실시간으로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결과 이민자들의 고국과 제2의 고향 모두에서 많은 일자들이 만들어진다. 지금까지는 이런 협력을 위한 시장은 주로 미국이었지만 장차 중국과 인도의 소비시장이 성장하면 새로운 초국가적 형태의 기업가나 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더 거대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출생률과 이민 그리고 기회

- 가까운 장래에 젊은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이 노령 인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다. 그사이에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들을 새로운 현실에 적응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면서 불안과 심지어 분노도 함께 커질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충돌이 빚어내는 결과는 우리가 현재의 불안을 어떻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회로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